



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개막전 2연패를 당한 KIA 선동열 감독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기아타이거즈 제공>

풀죽은 방망이... 기죽은 호랑이

KIA, SK에 2-6, 1-4 무기력한 2연패
 개막전 8연패... 내일 삼성과 홈 개막전



‘호랑이 군단’이 무기력한 2연패로 2012시즌을 열었다. KIA 타이거즈가 8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며 1-4로 패배를 당했다. 전날 3개의 실책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12개의 잔루를 남기며 2-6으로 고개를 숙였던 KIA는 2패를 안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2005년부터 계속된 개막전 패배 징크스를 깨지 못한 KIA는 개막전 8연패의 불명예 기록까지 작성했다. 갑작스런 라미레즈의 부상으로 선발로 긴급 투입된 새 외국인 투수 앤서니가 SK 타선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탈삼진 한 개를 곁들여 삼자범퇴로 1회를 마무리했던 앤서니가 2회 선두타자 안

치용에게 첫 안타를 허용했다. 박정권을 상대로 두 번째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김강민의 2루타와 조인성의 볼넷으로 1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다. 앤서니는 박진만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데 성공했지만 임훈에게 싸늘이 3루타를 얻어맞으면서 3점을 내줬다. 박정권의 안타로 시작한 4회말에는 김강민에게 2루타를 허용하면서 점수는 0-4까지 벌어졌다. 초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 1회초 KIA가 신종길과 안치훈의 연속안타로 1사 1·2루의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4번 타자 나지완의 방망이가 헛물었다. 5번 김원섭도 좌익수 플라미로 아웃되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SK 선발 윤희상에게 7회까지 4개의 안타와 볼넷 두 개를 뽑아내는데 그치며 끌려갔다. 8회까지 홈을 밟지 못하면서 영봉패 위기에 몰렸던 KIA는 9회초 안치훈과 김원섭의 2루타 두



앤서니 흑독한 신고식 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SK 경기. KIA 선발 앤서니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개로 간신히 1점을 뽑아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 1-4 패를 기록했다. 친정팀 복귀 무대에서 2연패를 당한 선동열 감독은 “초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A는 10일 에이스 윤석민을 앞세워 ‘디펜딩 챔피언’ 삼성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문학=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연패보다 심각한전 ‘부상 대란’

KIA 타이거즈가 개막 시작과 함께 ‘부상 대란’에 빠졌다. 개막전 8연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8일 부상 쓰나미에 KIA 덕아웃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SK와의 시즌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세 명의 선수가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왼쪽어깨에 염증이 생긴 투수 라미레즈가 엔트리에서 빠졌고,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는 임준혁도 공 하나도 던지지 못

하고 집을 췌다. 여기에 중심타자 김상현까지 왼손목염좌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개막 하루 만에 세 명의 선수가 빠진 가운데 8일 경기에는 라미레즈를 대신해 개막전 임시 필승 계투진으로 대기를 하고 있던 앤서니가 선발로 출격했고, 김상현이 빠진 클린업트리오는 안치훈-나지완-김원섭으로 꾸려졌다. 개막과 함께 선발진이 흐트러졌고, 중심 타선도 무너졌다.

선 감독은 서재응-라미레즈-윤석민-박경태-앤서니로 시즌 첫 5연전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어깨가 좋지 않은 양현종을 대신해 박경태가 선발진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손영민·김진우의 부상으로 흔들거리던 마운드는 선발 이탈로 대혼돈에 빠졌다. 타선의 고민도 깊다. 최희섭이 2군에서 뒤늦게 몸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범호가 햄스트링으로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

했고, 김상현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KIA의 ‘LCK포’가 실종됐다. 마형이중방의 은퇴와 야수 최고참 김상훈의 부상 등 위기 상황에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베테랑들의 부재까지 더해지면서 KIA의 4월은 가시밭길에 예고된다. 선동열 감독이 부상 대란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개막과 함께 KIA 새시령탑의 지도력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학=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UN “투구폼·공 좋아...나도 완봉패 당했지”

‘타이거즈 킬러’ 김원형 은퇴
 “투구폼과 공도 좋았고, 내가 완봉패도 당했었지.”
 8일 문학구장에서는 마운드의 ‘어린왕자’ SK 김원형의 은퇴식이 열렸다. “김원형은 품도 예쁘고 공도 잘 던졌던 투수였다”고 말문을 연 KIA 선동열 감독은 “내가 완봉패를 당하기도 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선 감독은 “그때 김기태 감독의 솔로 홈런으로 내가 0-1로 졌을 것이다”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1991년 8월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당시 쌍방울의 고졸 투기였던 김원형은 국보급 투수 해태 선동열과의 맞대결에서 겁없는 피칭으로 9이닝을 무실점으로 지키며 완봉

승을 거뒀다. 대졸 신인 김기태의 솔로홈런 포 한방에 선 감독은 패전 투수가 됐다. “무등산 폭격기”를 상대로 완봉승을 가져간 김원형은 이후 타이거즈에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타이거즈 킬러’로 명성을 누려왔다. 19승으로 1991년 다승왕에 올랐던 선 감독은 그해 기록한 4패 중 1패를 신인 김원형에게 당했다. 그래서 김원형은 선 감독에게는 잊을 수 없는 투수로 남아있다. 김원형은 전주고를 졸업한 1991년 쌍방울에 입단해 프로에서 21시즌을 뛰었다. 통산 545경기에 출장한 그는 3.92의 방어율로 134승 144패를 기록했다. 또한 1993년 OB를 상대로 노히트노런승을 거두며 프로야구 최연소(20세 9개월 25일) 노히트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학=김여울기자 wool@>

KIA 내일 홈 개막전 이벤트 다채

탤런트 박신혜 시구
 사인회·축하 사인발

KIA 타이거즈가 10일 2012시즌 광주 홈개막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친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개막 식전 이벤트가 시작되며 오후 5시에는 선수 사인회가 열린다. 오후 5시40분 선동열 감독 및 선수들의 올 시즌 각오가 담긴 개막 오프닝 영상이 상영되고, V11을 열원하는 대북 공연이 오프닝 공연으로 준비됐다.

개막식 공식 행사는 오후 6시 5분부터 개그맨 배동성의 사회로 진행된다. 원정팀 소개에 이어 웅장한 대북 소리에 맞춰 KIA 선수단이 소개되고 양팀 감독에게 꽃다발이 전달된다. 행사가 끝난 뒤 선수단은 축하 사인발을 투척하며 그라운드를 퇴장한다. 개막 축하공연은 2011년 슈퍼스타K3의 우승팀인 율랄라세션이 맡는다. 공연은 오후 5시 45분부터 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율랄라세션은 애국가도 부를 예정이다. 이날 시구는 탤런트 박신혜가 하고, 시타는 강운태 광주 시장이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동진&낙산사&양떼목장 기차여행

무궁화호(무박 2일)
5월4일(금)
 저녁 8시30분 광주역출발

1인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기차표/항공권/승선권/국제선할인 항공권 판매
 ※기차여행은 각역에서토접수가능합니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섬여행	해외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2일 대마도 크루즈 ₩23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5월 3일,17일 ₩365,000원~ 5월 11일,25일 ₩385,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올레길 블루나래호 ₩12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혜리(매주목) ₩65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4일 청 도 위동혜리(매주토) ₩33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6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혜리(매주목)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혜리(매주화) ₩460,000원~
	5일 장가계 MU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4일 황산 MU ₩670,000원~